

『自省錄』을 통해 본 退溪의 僞學방법론**

申 龜 鉉*

• 目 次 •

I. 서 론	3. 爲學姿勢
II. 본 론	4. 爲學要法
1. 『自省錄』의 편집과 체제	5. 戒近名
2. 治初學之通患	III. 결 론

I. 서 론

퇴계학은 그 범위가 넓어서 經學, 性理學, 文學, 數理學, 禮學, 史學, 敎育, 政事, 選學, 書法까지를 포함한다.¹⁾ 이러한 여러 분야 중에서도 퇴계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경학과 성리학이며 이 두 분야는 修己治人의 도리와 心性理氣의 관계를 주로 논구하여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현의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인격적인 성숙과 발전의 가능성을 체득케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퇴계에 있어서는 경학과 성리학을 달리 표현하면 ‘聖學’, ‘正學’, ‘爲己之學’이라 지칭할 수 있으며, 여타의 학문 분야는 ‘俗學’, ‘爲人之學’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상이한 두 가지 학문 중 이제 우리는 속학이 아니라 성인을 배우는 방법론을 고찰하고

* 영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48호(1985) 게재논문

1) 李家源, “퇴계학의 연구과제”, 『退溪學研究論攷提要』, (서울: 퇴계학연구원 1980), 95쪽 참조.

자 한다. 퇴계는 성학이 仁을 구하는 학문이며²⁾ “또 듣건대 공자께서는 ‘배우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위태로워진다’고 하였으니 學이란 그 일을 習得하여 참되게 실천하는 것을 이르는 것입니다. 대저 聖門의 學은 마음에서 구하지 않으면 어두워져서 언지 못하는 까닭에 반드시 마음으로 생각하여야 그 미묘한 것에 통달하고 그 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위태로워져서 불안한 까닭에 반드시 배워서 그 실상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생각하고 배우는 것이 서로 밝히고 서로 돕습니다.”³⁾라고 한다. 성학은 나의 마음에서 仁을 구하여 그것을 나의 생활에 실천하게 하기 때문에 위기지학이다. 그래서 퇴계는 도리를 지식의 대상으로 덕행을 실천의 목적으로 하여 이것을 심득 공행하는 것이 위기지학이요 외면적인 허식으로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위인지학이라고 한다.⁴⁾

성학의 체계와 내용을 퇴계는 선조 대왕에게 올린 「성학십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高橋進 교수의 이 십도에 관한 창의적인 연구는 그 심오한 철학적 의미를 깊은 통찰력으로 논리정연하게 해명해 준다.

「성학십도」도 그 속에 제5도에서 제10도에 이르기까지 절반 이상이 성학의 방법론에 관한 이론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제시된 방법론은 아직 원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성학십도」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성학의 총괄적인 이념정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는 달리 『자성록』과 『언행록』은 성학을 배우는 개별적인 방법의 규범을 제시해 주는 각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자성록』은

2) 聖學在於求仁. “聖學十圖筭并圖”, 『增補退溪全書』(이하 『퇴전』으로 약칭), 권1, (서울: 성균관대학교대동문화연구원 1971) 201쪽.

3) 抑又聞之 孔子曰 學而不思 則罔 思而不學 則殆 學也者 習其事而 眞實踐之謂也 蓋聖門之學 不求諸心 則昏而無得 故必思而通其微 不習其事 則危而不安 故必學而踐其實 思與學 交相發 而互相益也. 앞의 책, 192쪽.

4) 先生曰 爲己之學 以道理 爲吾人之所當知 德行吾人之所當行 近裏着工 期在心得 而躬行者 是也 爲人之學 則不務心得躬行 而飾虛循外 以求各取譽者是也. 『퇴전』, 권4, 179쪽.

『언행록』을 집약하는 반면 『언행록』은 『자성록』을 부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지면이 제한된 본 연구의 범위를 『자성록』에 국한하고자 한다.

퇴계의 학문방법론에 관해서는 주제적으로 혹은 다른 문제의 연구와 관련해서 부차적으로 이미 많이 연구되었으며⁵⁾ 이를 통해 『자성록』과 『언행록』이 많이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문헌들이 성학의 방법론적 관점에서는 전체적으로 연구분석된 바 없는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우선 『자성록』을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 고찰함으로써 퇴계의 위학방법론의 세부적 규범체계를 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II. 본 론

1. 『자성록의』 편집과 체제

「성학십도」은 처음부터 하나의 통일적인 구상에 의하여 작성된 반면 『자성록』은 퇴계가 55세(기묘, 1555)에서부터 60세(경신, 1560)에 이르는 5년간 즉 사상적인 원숙기에 문인들에게 보낸 서간 22통으로 편집되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통일성과 체계성이 없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나 자세히 검토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왜냐하면 퇴계는 ① 서간을 단순히 연대순으로 배열하지 않고, 필자의 견해로는,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내용적인 순서로 배열하였다.⁶⁾ ② 많은 서간에 있어서 방법론적인 문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부분은 삭제되었

5) 배종호, “이퇴계철학의 방법론”, 『동양문화연구』, 제10집,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1983), 1-14쪽 참조.

6) 이에 대한 증거로 우리는 1번 答南時甫(병진, 1556), 2번 答南時甫(무오, 1558), 3번 答金伯榮(을묘, 1555)과 19번 鄭子中與奇明彦(庚申, 1560), 20번 與奇明彦別紙, 21번 答盧伊齋(庚申, 1560), 마지막의 答奇明彦(己未, 1559) 등의 서간을 지적할 수 있다.

다.⁷⁾ ③ 한 서간의 일부분을 다른 서간의 일부분과 결합시킨 경우도 있으며⁸⁾, 한 서간의 本紙와 別紙를 다른 곳에 분리 배열한 경우도 있다.⁹⁾ ④ 퇴계가 『자성록』을 편집하여 戊午 端午後 1일(1558. 5. 6)에 서문을 쓴 이후에도 答黃仲舉를 포함한 8통의 서간을 추가 삽입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자성록』도 표면적인 인상과는 달리 내용적으로는 상당한 통일성과 체계성을 지니고 있음이 판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의 要目에 따라 쓰여진 저술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항목의 체계적인 순서에 일관성이 부족함은 불가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성록』의 체제를 첫째 治初學之通患, 둘째 爲學의 基本 姿勢, 셋째 爲學之要法, 넷째 戒近名 등 크게 네 개의 주제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주제는 『자성록』에 배열된 순서로 1-3번, 둘째 주제는 4-12번, 셋째 주제는 13-19번, 넷째 주제는 20-22번의 서간에서 논술하고 있다. 이제 단락을 바꾸어 이 주제들이 포함하는 세부적인 항목들을 분석 고찰해 보기로 하자.

2. 治初學之通患

1-3번의 서간에서 퇴계는 성학을 배우는 초학자들의 공통적인 心氣之患과 그 치료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성학을 배우려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갖는 心氣之患은 아직 理를 통찰함이 투철하지 못해서 헛되게 천착하여 억지로 탐구하고, 마음을 가지는 방법에 어두워 조금씩 서두르는 데에서 생기는 것이다.¹⁰⁾ 이러한 마음의 병은 퇴계가 몸소 겪었고 주자에게도 초년에는 없지 않았다고 한다.¹¹⁾ 이러한 마음의

7) 3, 6, 8, 12, 15, 18, 21번의 서간.

8) 8번 서간.

9) 17번과 20번 서간.

10) 心氣之患 正緣察理未透 而鑿空以強探 操心昧方 而握苗以助長. 『자성록』, 『퇴진』, 권3, 159쪽.

11) 退溪所身歷 雖晦翁先生 初間亦不無此患. 같은 곳.

병에 걸리게 되면 理가 일용 사물에 밝게 드러나서 단지 作止와 語默의 사이나 彝倫, 應接의 즈음에서뿐만 아니라 平實, 明白, 細微, 曲折한 것에도 언제 또 어디서나 그러하지 아니함이 없음을 알지 못하고¹²⁾ 자꾸만 고원 심대한 곳에서 손쉽게 파악하려 한다. 이러한 일은 子貢도 할 수 없었는데 초학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헛되이 찾아 헤매는 수고만 있을 뿐, 행동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¹³⁾ 그런데도 또 벗들과 함께 切磋琢磨하지 않고 산중에 홀로 앉았던 순간에 도를 깨치려 노력한다면 결국 선가의 空思想에 빠지게 되고 만다. 이렇게 되면 성학은 결코 배울 수 없다. 이 때문에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퇴계가 제시한 治藥之方은 무엇인가? 첫째로, 세간의 窮通 得失과 영욕 이해를 일체 생각밖에 두어 마음에 누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병은 이미 상당한 정도(五七分)로 낫는다. 이와 같이한 다음 둘째로, 모든 일상 생활에 있어서 酬酢을 적게 하고 기호와 욕망을 절제하며 마음을 비워 편안하고 유쾌하게 나날을 보낼 것이며 도서와 화초의 玩賞이라든가 山水 魚鳥의 즐거움 같은, 정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되도록 자주 접촉하여 심기를 항상 순경 중에 있게 하고 마음을 거스르거나 어지럽히며 성내고 원한을 품지 말 것이며, 셋째로, 책을 읽을 때에도 마음이 괴로울 정도로 읽지 말 것이며 또 많이 읽으려 하지 말고 마음내키는대로 그 뜻을 음미하며 즐기고, 넷째로, 공리는 일용의 평이 명백한 곳에 나아가 理를 간파하고 이에 숙달케 할 것이며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마음에 스며들게 하여(優游厭饒) 着意하거나 着意하지 아니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것을 반성하여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오래 쌓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해

12) 盖此理 洋洋於日用者 只在作止語嘿之間 彝倫應接之際 平實明白細微 曲折 無時不然 無處不然. 같은 책, 154쪽 하단.

13) 初學 舍此 而遽從事於高遠深大 欲徑捷 而得之 此子貢 所不能 而吾輩能之哉 所以徒有推求尋覓之勞 而於行處 莽莽然 無可據之實矣. 같은 곳.

되어 연계 될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서둘거나 마음을 얽어매어 빠른 효과를 거두려 하지 말아야 한다.¹⁴⁾

이러한 처방을 각자가 치병에 적용할 때에는 선후와 경중을 고려해야 하며 이것은 병의 원인과 증상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퇴계가 金伯榮, 可行, 惇紘 三兄弟의 父喪遷母墓合葬 等 禮에 관한 질문에 답한 서간은(3번) 종전의 연구에서 『자성록』 전체와의 연계성이 올바르게 파악되지 못하여 별로 주목과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실제로는 단순한 예론에 그치지 않고 중대한 방법론적 의의를 지니고 있음이 확실하다. 이 치병의 방법은 성학을 배우는 초보자들이 쾌활하고 여유 있는 건전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異端과 邪說에 따르지 않고 공명정대한 군자로 성장 발전하는데 기여한다.

3. 爲學의 基本 姿勢

鄭子仲과 權好文에게 보낸 서간에서(4-12) 퇴계는 학문, 즉 성학을 배우는 기본자세를 전반적으로 설명한다. 그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立志

성학을 배우려는 초보자들이 빠지기 쉬운 병폐는 뜻을 확고히 세우지 못하는 것이다. 참으로 뜻이 독실하면 도를 듣기가 어렵지 않다.¹⁵⁾ 그리고 입지에는 또한 그 목적, 즉 무엇을 위해 입지를 하는 가도 중요시되어야 한다.¹⁶⁾

14) 같은 책, 153쪽 하단 참조.

15) 夫士之所病 無立志耳 苟志之誠篤 何患於學之不至 而道之難聞耶. 같은 책, 157쪽 하단.

16) 晬問學者之初 何先 先生曰 立志爲先 然觀所志亦何事. “言行錄”, 『퇴전』, 권4, 25쪽 하단 참조.

(2) 爲學本末

옛날에 학문하는 자는 반드시 孝悌忠信에 근본을 두고 다음으로 천하 만사와 盡性至命의 극치에까지 이르렀으니 그 대체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또 가정에서 어른들의 부름에 대답하는 일을 가장 먼저 그 리고 급히 배웠다.¹⁷⁾

(3) 聯床講磨와 悟其語病¹⁸⁾

학문하는데 있어서 편견과 고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학우들과의 연상강마가 필요하고 독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이나 타인의 주장에 병통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4) 學習

다만 말없이 공부를 쌓아 가며 전진하기를 그치지 않고, 이런 학습을 오래 쌓아 완숙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心和 理가 하나 되어 이 양자를 잡았다 놓쳤다 하는 병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의 방법은 程子の 정제엄숙, 안자의 四勿, 정자의 動容貌 正顏色 出辭氣에 있어서와 같이 敬이어야 하며 결코 尋覓安排하거나 強探鑿空하지 말아야 한다.¹⁹⁾

(5) 隨處下工

성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敬으로써 심신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끄러운 곳(鬧處) 보다 조용한 곳(靜處)에서 專一한 공부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이 때문에 조용한 곳에서만 공부를 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세속의 여러 가지 일은 학문하는데 방해가 될 때도 있으나 가정의 일용사는 모두가 성학의 목적에 벗어나지

17) 古人所以爲者 必本於孝悌忠信 以及於天下萬事盡性至命之極 蓋其大體無所不包 而且最急者 尤在於家庭唯樂之際. “자성록”, 『퇴전』, 권3, 157f.쪽.

18) 같은 책 159쪽 상단.

19) 같은 책 159쪽 참조.

아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靜處와 鬧處 어느 곳에서나 전일한 공부를 하여야 한다.²⁰⁾

(6) 踐履得力

성학은 언어와 문자로만 배우는 口耳之學이 아니고 실천공행을 통하여 배우는 心性之學이다. 이 때문에 踐履가 힘차고 능숙하지 못하면 수십년간 더욱 노력하여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²¹⁾

(7) 持而悠久 優游厭饒

고인들이 학문한 것을 살펴보면 비록 끊임없이 공경하고 힘써 잠시의 間斷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많은 공부를 쌓아 오랫동안 충분히 연구하고 실천한 다음에야 지식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순서에 따라 얻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성학을 결코 급히 구하려 해서는 안된다.²²⁾

(8) 操存省察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持而悠久 優游厭饒하면서 동시에 조용히 있을 때에는(燕居) 마음이 흩어지고(放心) 쇠진해지지(枯亡) 않도록 붙잡아 두고(操存) 길러 주어야(涵養) 하며, 행동할 때에는 시비, 선악, 邪正, 의리 등을 엄격히 구별하여 非, 利, 邪, 惡을 피하고 그 반대를 따라야 한다. 窮而買田, 游定夫의 倍師從夷之惑, 주자가 陳顏卿을 처음 만나 기뻐한 일, 주자의 문인들이 정자의 문인들 보다 得力이 부족한 점, 胡致堂이 嫡母에게 입양된 후 생모를 壓尊한 고사 등에 관한 퇴계의 설명은 성찰의 좋은 모범을 보여 준다.²³⁾

20) 같은 책 160쪽 상단 참조.

21) 같은 책 161쪽 하단 참조.

22) 같은 책, 162쪽 상단 참조.

23) 같은 책, 163f.쪽 참조.

(9) 求仁智

옛 성현들이 이미 산수를 좋아했듯이 초학자도 산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노장 학파에서처럼 자연을 사랑하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수가 상징하는 仁과 智를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퇴계는 이 즐거움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仁하고 智한 자의 氣象 意思를 찾아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²⁴⁾

4. 爲學 要法

위학 요법은 13-19번의 서간에서 논의된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는 독서, 존양 거경, 성찰 공리의 3절로 대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독서의 1절을 퇴계는 14번의 서간 答金惇敍에서 경에 관한 설명과 함께 두 곳에서 간단히 언급하고 있으나 주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존양 거경, 성찰 공리와 동등한 절로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4번의 서간 答李叔獻은 존양 거경과 성찰 공리의 문제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그 앞에 설명한 존양 거경의 문제와 뒤의 서간들에서 논의되는 성찰(15-17)과 공리(18-19)의 문제를 보다 더 긴밀하게 연결시켜 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존양 거경과 성찰 공리에 있어서 존양 성찰은 거경 공리의 목적이요, 반대로 거경 공리는 존양 성찰의 수단이다. 수단은 목적에 의존함으로 퇴계는 목적을 먼저 논술한 다음에 수단을 나중에 논술한다. 이 관계가 존양 거경을 논하는 13번의 서간 答金惇敍에서는 문목의 순서대로 답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으나 퇴계 자신이 배열한 15-17번의 서간에서는 성찰, 18-19번의 서간에서는 공리의 문제를 논술하는 사실에서 분명히 밝혀진다. 따라서 우리는 존양 거경, 성찰 공리라는 순서에 따르고자 한다. 이러한 전체적인 배경에서 각 절의 세목을 다시 고찰해 보기로 하자.

24) 같은 책 165쪽 참조.

(1) 독서

독서할 때에는 먼저 한 구절의 대의를 파악한 다음 어느 字가 중요한가를 살펴야 하며 반대로 해서는 아니된다. 책을 순서대로 한 번 속독을 하고 정밀히 생각을 하며 또 우유 염요하여 이런 노력을 오래 지속하여 성과가 커져서 無味한 것 중에서도 有味하고 無緊要한 것 중에서도 有緊要한 것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²⁵⁾ 그리고 심성이기지학에 관한 서적은 속독과 다독보다는 속독과 정독을 하여야 한다. 만일 속독을 하면 溫故知新할 수 없으며 현재 읽고 있는 책도 精思熟考할 수 없고 마음이 급하여 늘 쫓기는 것 같이 되며 다독을 하면 그 내용을 잊어 먹고 멍청해져서 마침내는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것과 같이된다. 따라서 속독과 다독을 피하고 속독과 정독을 하면서 낮에 읽은 것을 밤에 생각하고 풀이해 보아야 한다.²⁶⁾

(2) 存養 居敬

1) 存養: 존양은 평일 무사할 때 우리가 갖는 심신의 상태를 보존하고 함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의 심신 상태를 “外儼若思 中心主一 惺惺然”²⁷⁾ 혹은 “朝暮之傾 或有神清氣定底時節 儼然肅然 心體不待把捉而自存 四肢不待羈束 而自恭謹 意以爲古人氣象好時 必是如此”²⁸⁾로 퇴계는 묘사한다. 이러한 상태를 습성화하기 위해서 거경이 요구된다.

2) 居敬: 경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그 속에 머무름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이란 어떠한 마음의 상태인가? 퇴계는 경에 관한 설명이 아주 많으나 정이천의 主一無適과 整齊嚴肅, 謝上蔡의 常惺惺, 尹和靖의 其心收斂 不容一物 등의 네 가지를 함께 열거하는 주자의 四箇條目說이 가장 적절하다고 한다.²⁹⁾ 그리고 『자성록』의 경에 관한 논의는 이 四

25) 같은 책, 168쪽 상단 참조.

26) 같은 책, 169쪽 상단 참조.

27) 같은 책, 169쪽 하단.

28) “언행록”, 『퇴전』, 권4, 29쪽 하단.

29) 같은 책, 175f.쪽 참조.

簡條의 개별적인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우리는 그 내용을 네 개 조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자 한다.

- ① 主一無適: 이와 관계된 사례는 아주 많다.³⁰⁾ 그 중 두 가지만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퇴계가 思明思聰 등 事를 설명하면서 주자가 呂子約의 主一主事不同之間에 답한 것이다. 주자는 “主一只是專一無事 則湛然安靜 而不驚動 有事 則隨事應變 而不及乎他 是所謂主事者 乃所以爲主一者也”³¹⁾라고 한다. 둘째로 명도와 주자가 말한 바와 같이 寫字時의 정신 집중이 주일무적의 상태에 해당된다.³²⁾
- ② 其心收斂 不容一物: 이 상태는 주인이 자기의 집안에서만 손님을 영송함으로써 도둑의 침입을 막는 것과 비유된다.³³⁾
- ③ 常惺惺: 이것은 平居無事時에 고요하게 存養하고 또 만일 생각할 일이 있으면 생각하되 이 생각이 주일하여 주작이 없기 때문에 常昧無覺 常行不輟의 상태와 구별된다.³⁴⁾
- ④ 整齊嚴肅: 이것은 우리의 의복이나 신체적 동작과 자세에 나타나는 상태와 유사한 말이다. 따라서 퇴계의 危坐, 跪坐, 偃臥 등에 관한 설명은 정제엄숙을 예시한 것이다.³⁵⁾ 이 조목은 경의 외면을, 그리고 앞의 3조목은 내면을 의미하며, 초학자들의 거경은 외면에서부터 내면으로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3) 성찰 공리

이것은 앞의 존양 거경과 함께 성학 방법론의 수미이지마는 실제로는 양단 공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결합하여 호진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³⁶⁾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퇴계는 공리 거경의 문제를 동시에 설명하는 14번 서간

30) 『토전』, 권3, 166-168쪽 참조.

31) 같은 책, 167쪽.

32) 같은 책, 167쪽, 하단 참조.

33) 같은 책 169쪽. 來不迎 去不趨 所論 참조.

34) 같은 책, 169쪽 참조.

35) 같은 책 169f.쪽 참조.

36) 같은 책, 171쪽 하단 참조.

답李叔獻을, 존양 거경의 문제를 설명하는 13번 서간 答金惇敍와 성찰 공리의 문제를 설명하는 15번 答黃仲學에서 19번 答鄭子仲에게 보낸 서간들 사이에 편집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이제 성찰 공리의 세목을 고찰하기로 하자.

1) 성찰: 이것은 시비, 선악, 邪正 등과 같이 상반되는 두 가지 사항을 준별하여 서로 혼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퇴계는 『자성록』에서 정도와 사설, 義와 利, 出處와 去就, 本源과 心地 등의 문제를 성찰의 주대상으로 삼는다.

① 정도와 사설: 答金惇敍 말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퇴계는 叔梁紇이 尼山에 기도하여 공자를 낳았다는 고사와 南斗는 삶, 북두는 죽음을 관장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남두에 掇死請命을 하며 黔婁가 여기에 기도하여 부모의 병을 낫게 했다는 古記는 모두 野語 邪說일뿐이라고 한다. 부모의 병을 고치는 것은 기도의 효과 때문이 아니라 효성의 소치라고 퇴계는 해석한다. 왜냐하면 효자의 지성은 천지를 감동시켜 상서로운 이변을 일으키는 경우가 무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³⁷⁾ 만일 사람들이 야어 사설에 미혹되면 정도가 인멸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양자를 깊이 성찰하여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퇴계의 철저한 합리 정신을 발견하게 된다.

② 義와 利: 利의 本으로부터 말하면 利가 義의 和라고 해도 나쁠 것이 없다. 『易經』에서 利·不利를 말하고 『書經』에서 이용을 말하는 것이 그런 유이다. 사람이 利를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말한다면, 군자에 있어서는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기 때문에 해가 되고, 중인에 있어서는 私己와 탐욕의 구덩이가 되어 천하의 악이 모두 여기에서 생긴다. 利에 대하여 말함이 곳에 따라 이와 같이 다르다. 또 利는 비록 義의 和에 있지마는 마침내 義와 서로 대립되어 消長 승부를 하는 것은 利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의 마음은 본래 의를 바르게 하려 하지만 일에 임하여서는 간혹 義에 전일하지 못하고 利에 약간 뜻이 기울어지면, 이것은 벌써 무엇을 추구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 그 마음이 義와 배치되어 이런 利

37) 같은 책, 170쪽 참조.

는 자연히 義和의 利가 아니다.³⁸⁾ 따라서 우리는 義和의 利를 추구하고 이와 배치되는 利를 추구하지 않기 위해서 깊이 성찰하여 양자를 엄별 하여야 한다.

③ 出處 去就: 선비가 세상에 나서 벼슬하든지 은거하든지, 혹은 때를 만나든 못 만나든 결국 몸을 결백하게 하고 의를 행할 뿐 화복을 논할 바 아니다. 대개 선비가 세상의 화를 당하는 것은 학문이 지극하지 못하면서도 지나치게 높이 자처하고 때를 못 헤아리면서도 세상을 경륜하는 데에는 용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하지 않는다면 이미 출세한 바에야 어찌 사퇴의 뜻만을 고수할 것이며, 도의로 준칙을 삼는다면 또 어찌 나아가기만 하고 물러가지 않으리오.³⁹⁾ 따라서 출처와 거취는 도의와 시의를 깊이 성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本源과 心地: 학문을 하는데 있어서도 본원을 함양하되 심지의 공부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깊은 성찰을 통하여 양자를 엄별해야 한다. 그러므로 선유들이 학문을 논할 때 求放心과 養德性을 최초의 착수처로 삼았다. 이것이 바로 본원을 성취하는 곳이며 도를 이루고 업을 넓히는 기초가 되며 主일무적, 戒愼恐懼, 三省, 三貴, 四勿 등은 이 本源을 함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심지의 공부를 주로 한다면 釋氏의 견해에 빠지게 될 것이다.

2) 窮理: 성찰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공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리는 다단하여 한 가지 관점에만 국한해서는 안된다. 퇴계는 실로 枚擧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관점에 따라 공리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자성록』의 答奇明彦四端七情分理氣第一書와 鄭子仲與奇明彦論學 두 서간에서 확인된다. 여기에서 제시된 관점만을 열거해도 다음과 같다. 所就, 所從來, 同異, 先後, 顯微, 體用, 動靜, 分合, 粹駁, 表裏, 精糟, 必然當然 등 이러한 관점들도 그것을 적용하는 경우에 따라 活看(상대적으로 봄)해야 하며 고정화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體用의 관점은 형이상학적인 경우와 형이하학적인 경우에 적용할 때 달라진다. 형이상학적으로 말하면 沖漠한 것이 體가 되고 그것이 사물에 나타난 것이 用이

38) 같은 책, 174f 쪽 참조.

39) 같은 책 180쪽 참조.

되나, 형이하학적으로 말하면 사물이 體가 되고 그 理의 발현이 用이 된다. 이러한 궁리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 ① 사물을 철저히 분석한다. 그래서 퇴계는 강학을 하면서 분석을 싫어하고 종합에만 힘써서 하나의 관점으로만 설명하는 것을 고인들은 이미 鵠圖吞棗에 비유하였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분석은 궁리의 전제조건이다.
- ② 분석을 다시 종합한다. 분석은 부분의 이해를 가능케 하는 반면, 종합은 이 부분들의 전체적 관련성을 파악하게 한다. 부분의 이해 없는 전체의 이해는 피상적이고, 전체의 이해 없는 부분의 이해는 단편적이다. 따라서 퇴계에 있어서는 “就同中 而知其有異 就異中 而見其有同 分而爲二 而不害其未嘗離 合而爲一 而實歸於不相雜 乃爲周實 而無偏”⁴⁰⁾ 이 두 번째의 특징이다.
- ③ 궁리는 하나의 관점에 고정되거나 국한되어서는 아니되며 관점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 사물을 다양한 측면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隨處活看이 세 번째의 특징이다.

5. 戒近名

퇴계는 『자성록』의 마지막 부분에서(20-22번 서간) 성학을 배운 자가 어느 정도의 학문적 발전과 인격적인 성숙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범하기 쉬운 과오를 경계함과 동시에 그것을 교정하는 瞑眩之藥을 제시한다.

(1) 虛聲先播

성학을 배워서 원숙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일생의 노력으로도 어려운 일이나, 이러한 경지에 이르기도 전에 허성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은 고금의 通患이니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그래서 세인들은 그런 학자들을 원숙의 경지에 이른 것으로 대우해 주며 성인의 지위에까지는 추대하지

40) 같은 책 183쪽 상단.

않아도 성인들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맡긴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책임을 맡아서 성현으로 자처하다가 名實이 未副한 곳이 있으면 그것을 숨기고 自欺而欺人하게 되니 결국 그것이 폭로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⁴¹⁾ 따라서 학자는 허성선과를 경계해야 한다.

(2) 戒近名

지혜 있는 체하고 아양을 떨어 명성을 얻는 일은 아주 경계해야 한다. 이런 명성은 화를 자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명성은 보다 더 큰 성과와 발전을 촉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거절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治病之劑인 근명지계가 迷人之毒이 되지 않아야 한다.⁴²⁾

(3) 集衆長而精去取 不憚修改 期就於至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자의 集註와 章句는 백세가 지나도 이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학자는 虛心遜志하여 자기의 견해가 조금이라도 부당하면 곧 버리고 다른 사람의 보다 더 타당한 이론을 받아 들여야 편견과 독단에서 벗어날 수 있고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⁴³⁾

(4) 但知有己 不知他人

학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성장 발전하면 자신의 권위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위를 무시하는 병통이 생기기 쉽다. 이러한 병통을 고쳐야만 여러 학자들이 서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明師 益友들과의 切磋琢磨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의 퇴계학국제학술발표대회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41) 같은 책 186쪽 하단 참조.

42) 같은 책, 187쪽 상단 참조.

43) 같은 책, 187쪽 하단 참조.

Ⅲ. 결 론

서두에서 이미 지적되었듯이 퇴계학은 그 범위가 광대할 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친절 명백함과 동시에 深遠精微하여 연구가 일친한 필자로서는 그 전체의 規模 節目과 淺深詳略을 아직 파악하고 평가할 수 없다. 만일 『자성록』을 퇴계학의 전체적 체계와의 관계성 속에서 연구한다면 爲學方法論적인 문제와 다른 문제들은 물론, 보다 더 깊고 더 많은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성록』 한 권만의 연구를 통해서도 필자는 그 속에서 참으로 많은 철학적 사상과 학문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거기에는 성학을 배우는 초학자들의 通患을 고치는 처방, 학문하는 기본자세, 거경 궁리의 방법, 欺世盜名의 경계가 있다.

(2) 이러한 내용들은 학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가장 친절하고 신뢰할 만한 안내자로 간주된다.

(3) 퇴계의 엄격하고 부단한 위학 정신과 고매한 인품, 깊은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4) 퇴계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지적되었듯이 『자성록』에서도 정통 유가의 사상을 충실히 수용 계승하는 依樣之味가 없지 않은 것 같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인상에 불과하며, 이면적으로는 단순한 依樣을 넘어서 사상을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하여 그것을 다시 동료와 후학들에게 친절 명백하게 전수해 주는 창의력이 있다.

(5) 퇴계의 『언행록』을 후인들은 공자의 『논어』에 비유한 바 있거니와, 이러한 비유를 확대한다면 우리는 『자성록』이 『家語』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도 좋을 것 같다.